

충 무공 어록

1. 勿令妄動 靜重如山
- 1592. 5. 7. / 첫번째 해전 옥포해전시
2.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 1592. 5. / 임금의 몽진 소식시
3. 水陸俱擊 庶可盡殲
- 1592. 9. 17. / 임진년(1592) 마지막 해전 부산포해전 후
4.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
- 1594. 3. 제 2 차 당항포해전 후
- 4-2. 瞭察賊船 登時馳告
- 1594. 3. 제 2 차 당항포해전
5. 知己知彼 百戰不殆
- 1594. 11. 28. / 갑오년(1594) 장문포해전 후 전란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시기
6. 水國秋光暮 驚寒雁陳高 憂心輾轉夜 殘月照弓刀
- 1595. 10. / 전란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시기
7. 今臣戰船 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今若全廢舟師 則是賊之所以爲幸 而由湖右達於漢水 此臣之所恐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
- 1597. 8. 15. /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후 수군정비 중
8. 今臣戰船 尙有十二
- 1597. 8. 15. /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후 수군정비 중
9. 必死則生 必生則死 又曰一夫當逕 足懼千夫 今我之謂矣 爾各諸將 少有違令 則卽當軍律 不可饒貸 再三嚴約
- 1597. 9. 15. / 명량해전 하루 전
10. 必死則生 必生則死
- 1597. 9. 15. / 정유년(1597) 9 월 명량해전 하루 전
11. 一夫當逕 足懼千夫
- 1597. 9. 15. / 정유년(1597) 9 월 명량해전 하루 전
12. 此讐若除 死卽無憾
- 1598. 11. 18. / 최후의 해전 노량해전 하루 전
13. 戰方急 慎勿言我死 勿令驚軍
- 1598. 11. 19. / 최후의 해전 노량해전 시 적탄에 맞아 전사하기 바로 전

충무공 어록 해설

1. 勿令妄動 靜重如山

이 어록은 충무공 이순신께서 23 해전 중, 첫번째 해전인 옥포해전을 앞두고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산처럼 침착하고 무겁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장병들에게 전장의 공포심과 전쟁경험 부족을 극복하고, 전장에서의 여유와 냉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훈시하신 말씀임.

2. 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

이 어록은 충무공 이순신께서 임란 중 선조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후 나라의 앞날을 근심하면서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아는구나!” 라는 충신의 굳센 의지와 장부의 기개 및 충혼을 표현한 말씀임.

3. 水陸俱擊庶可盡殲

이 어록은 충무공 이순신께서 임진년(1592) 마지막 해전인 부산포 해전을 마치고 “수군과 육군이 함께 진격해야만 왜적들을 섬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며, 이 글은 조정에 보고한 「부산포 승첩장계」 중의 일부로 海戰防倭論과 함께 수륙협공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임.

4.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

이 어록은 1594년 3월 제 2차 당항포 해전 후 제작한 충무공 장검에 새겨져 있는 검명어로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떠는 도다.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붉은 피가 산과 강을 적시는 구나.’ 라는 내용으로 왜적에 대한 무한한 적개심과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충무공의 비장한 각오와 전투결의를 담고 있는 말씀임.

4-2. 瞭察賊艇 登時馳告

이 어록은 충무공 이순신께서 제 2차 당항포해전에 임하면서 부하 장수들에게 내린 명령이다. 그 뜻은 적선의 유무를 잘 살피고 적함을 발견하는 즉시 달려와 아뢰라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매우 중시되는 즉각 보고를 당부한 것이다.

5. 況 知己知彼 百戰不殆

이 어록은 충무공 이순신께서 임진왜란 시 난중일기에 중국 「손자병법」의 모공(謀功)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남기신 글로서,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될 때 백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라는 내용을 강조하였음.

6. 水國秋光暮 驚寒雁陳高 憂心輾轉夜 殘月照弓刀

이 어록은 충무공 이순신께서 임진왜란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1595년 10월경 한산도의 늦가을 바다를 보시며 지으신 한시로 “한 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드는 밤 새벽달 창에 들어 칼과 활을 비추네”라며 나라와 전쟁에 대한 걱정 등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충무공의 우국충정을 표현한 말씀임

7. 今臣戰船 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今若全廢舟師 則是賊之所以爲幸 而由湖右達於漢水 此臣之所恐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

이 어록은 총무공 이순신께서 칠천량 해전 후 통제사로 재임명되어 수군 재건을 준비하고 계실 때 해전을 포기하고 육전을 도우라는 선조의 有旨에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열 두 척이 있사오니 死力을 다해 항전한다면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만약 수군을 모두 폐한다면 이는 적이 다행스럽게 여길 것이고, 전라도 해안을 거쳐 한강까지 이를 수 있으니 이는 신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전선은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이상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시며 수군의 승전에 대한 강한 신념을 나타내신 말씀임.

=====> 출전 : 「이충무공전서」 권 9. 「行錄」(李芬) 丁酉年

8. 今臣戰船 尙有十二

이 어록은 총무공 이순신께서 칠천량 해전 후 통제사로 재임명되어 수군 재건을 준비하고 계실 때 ‘수군의 세력이 약하니 해전을 포기하고 육전을 돕는 것이 좋겠다.’는 선조의 有旨에 「신에게는 아직도 열 두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라는 장계를 올려 수군을 포기할 수 없는 강한 신념을 선조께 아뢴 말씀임.

9. 必死則生 必生則死 又曰一夫當逕 足懼千夫 今我之謂矣 爾各諸將 少有違令 則卽當軍律 不可饒貸 再三嚴約

이 어록은 총무공 이순신께서 丁四年(1597년) 9월 15일 명량해전 하루 전에 난중일기에 남기신 글로서,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려고 만 하면 죽을 것이다. 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군율대로 시행하여 작은 일이라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전쟁에 임하는 장병들에게 재 삼 엄중히 약속하신 내용임.

10. 必死則生 必生則死

이 어록은 총무공 이순신께서 정유년(1597) 9월의 명량해전을 하루 앞두고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한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필사의 각오를 다지고 싸우도록 장병들에게 훈시하신 말씀임.

11. 一夫當逕 足懼千夫

이 어록은 총무공 이순신께서 정유년(1597) 9월의 명량해전을 하루 앞두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록 함정 수는 적지만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싸우도록 장병들에게 훈시하신 말씀임.

12. 此獸若除 死卽無憾

이 어록은 총무공 이순신께서 최후의 해전인 노량해전을 하루 앞둔 1598년 11월 18일 자정에 겨레의 생명과 나라의 보존을 위한 최후의 염원을 담아 하늘에 올린 함상 기도문으로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라는 결사보국 정신의 말씀임.

13. 戰方急 慎勿言我死 勿令驚軍

이 어록은 충무공 이순신께서 최후의 해전인 노량해전에서 왜군이 쏜 총탄에 맞아 전사하기 직전 ‘전투 상황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며 죽음앞 에서도 장병들의 사기와 전쟁의 승리만을 생각하신 충무공의 살신성인 정신을 나타내는 말 씀임.